

16만 市民 화합과 단결 '祝祭 한마당'

포천시 제5회 시민의 날 행사 19일 개최

포천시가 시 승격 4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자긍심과 단결을 고취하고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건설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5회 시민의 날 및 시 승격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4개 읍·면·동 주민들은 물론 재경포천시민과 기업인 대표, 군인 가족들도 참석해 화합의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또 포천시 자매·우호 도시인 중국 화이베이시와 체코 루노비츠시, 우크라이나 오부이프시 대표단과 태국, 인도 등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석했다.

제5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는 19일 오전 청성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시민대중 타중식으로 그 막이 올랐다.

고구려 장수왕 시절 마흘군이란 지명을 갖은 이래 시로 승격하기까지 걸린 1,500여년과 2003년 시 승격 당시 인구인 15만 명을 상징해 15톤으로 제작된 포천시민대중은 21세기를 상징하는 21평 넓이의 반월각에 안치돼 시민의 날을 더욱 뜻깊게 해 주었다.

포천시민대중 준공식에 이어 시민의 날 식전행사로 8사단 군악대 퍼레이드와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의 두드리 댄스, 포천시립민속예술단 공연, 중국 화이베이시 예술단 공연, 마상 무예 등으로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펼쳐졌다.

오후 4시에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시민현장 낭독과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으며, 최진희, 전영록, 주현미 등 인기 가수나 SBS 김경택 관현악단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오후 7시부터 진행됐다.

영중면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포천시 관내 7개 자치센터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자치센터 소개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자리를 함께 가졌다.

또 이날 향토음식 체험 및 국제장터 운영,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무료한방진료소, 나눔장터, 그네뛰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문화 및 부대 행사'가



포천시는 시 승격 5주년을 맞아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3천여명의 시민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제5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에 가을 비가 내려 행사 진행여부에 관해 포천시 관계자들이 논의한 끝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체육경기와 더불어 군악대퍼레이드를 비롯한 장애아동 두드리댄스, 천상의 마상무예, 화이베이시 예술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오후 4시에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시민현장 낭독과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시민의 날 기념축하 공연으로 최진희, 주현미, 전영록 등 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에는 '전야행사'로 이희정·대니정 사랑의 세레나데와 넬슨가라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의 공연, 코리아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이 저녁 7시 30분부터 120분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으며 불꽃놀이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6

만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포천운동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1천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또 포천종합운동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포천의제21 주관으로 광역철도 포천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 포천시 공동대책위원회는 "단계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영터리 균형정책, 즉 각 철화하라 라는 전단지 배포했다.

이들은 전단지에서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체, 성장, 발전지역으로 구분하면서 포천, 동두천, 연천을 울산, 포항, 부산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판정했다"면서 "인구 4만6천723명의 5인 이상 사업체를 모두 합쳐도 92개(1천446명 고용)밖에 안되

는 경기도 연천이 울산광역시와 맞먹는 성장지역(3등급)으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 동북부지역은 과밀도 아니고 성장을 억제해야 할 곳도 아니며 기업을 강제로 이전시켜야 할 지역도 아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정부의 잘못된 역차별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㉔
 경기도비 지원사업 적색신호

29여개 사업 내년 도예산 반영 난항

계속사업비 일부 지원 신규사업비 배정 못해

포천시가 경기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중인 29여개 사업이 2008년 경기도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포천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실과소장과 예산담당 등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를 방문해 도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도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이 증가한 반면 도세인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확보가 어려워져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비 지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반시설 확충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포천시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도비가 감소할 경우 일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비록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신규 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동두천시 광암동-선단동-가산마산리 등을 잇는 11.52km(4차로)의 광암-마산간 지방도364호선 확장 공사는 경기도가 올해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다. 내년 예산에 일부 용지보상비가 반영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착공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포천천 둔치와 하천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연경로와 휴식공간을 조성해 청정도시 포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포천시 중심부 하천기능 회복, 하천에 대한 시민여객심 부여, 바람직한 하천이

용과 친수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공사 역시 도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천시에 의하면 도비 확보가 난항을 겪고있는 사업은 문화복지국 소관 경기북부(포천)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 소홀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5건이다.

또 교통도로국 소관 사업으로는 포천중문대-풍곡교간 도로 확장공사, 포천신읍-신읍사거리-천주교간 도로개설공사, 송우-무봉간 도로확장공사, 포천고교-호병천간 도로개설공사,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8사단-장암교간 자연경로 도로개설공사,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깊이울저수지-상삼곡간 도로확장공사, 화현4리 도로확장공사, 포천고교-극동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국도 43호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12건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비지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도로망 구축 등 기반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고 있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개발경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형 도의원은 "내년 시군 도비지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노령연금 등 도비에 서 지급해야 하는 반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올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 건설, 뉴타운 건설사업, 팔당상수원 사업 등에 경기도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품격을 더한 골프 백화점 C&C 스포츠 · 골프 백화점

◆파사리(PASSARCI GOLF) ◆앙드레 김(Andre'kim GOLF)

open 기념 세일 50%~30%



open

C&C 스포츠 매장
 Tel. 031)541-4022



파사리 매장
 Tel. 031)543-0749



앙드레 김 매장
 Tel. 031)544-1452